

# “北 군사행동 전격 보류는 군사충돌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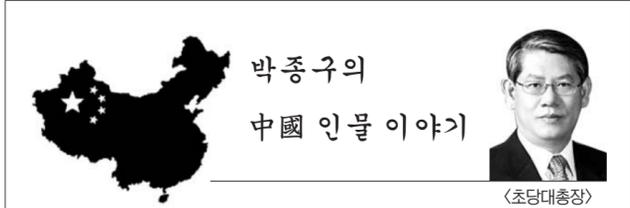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김여정 경력 만들기 완성 판단  
한국정부 향후 대응 기다리기  
日 산케이신문 3가지 배경 보도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한 데는 3가지 주요 배경이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우선 북한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북한군은 대북 전담에 맞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위협한 대남 전담 살포에 약 3000개의 풍선과 드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

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군을 동원한 엄중 경계 방침을 밝혔다. 양쪽 군의 체면이 걸린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피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두 번째로 '성과(成果)설'을 들었다. 이는 북한의 이번 도발 목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력 만들기'에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번에도 고조한 남북 긴장은 지난 4일 탈북자단체에 의한 대북 전담 살포를 비난한 김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뒤 북한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충성도 경쟁을 하듯이 한국을 비난한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김 제1

부부장이 지난 13일의 추가 담화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실현되면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이력서'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배경에는 한국 정부 대응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두 곳의 (남북협력) 사업은 2000년 이뤄진 남북 첫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남북화해의 최대 상징"이라며 "이곳에 (북한) 군이 배치되는 사태가 되면 과거 20년의 화해정책을 비난한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김 제1

부부장이 지난 13일의 추가 담화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실현되면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이력서'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배경에는 한국 정부 대응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두 곳의 (남북협력) 사업은 2000년 이뤄진 남북 첫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남북화해의 최대 상징"이라며 "이곳에 (북한) 군이 배치되는 사태가 되면 과거 20년의 화해정책을 비난한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김 제1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38〉 진희

진희(秦禧, 1090~1155)의 자는 회지(會之)로 강녕 출신이다. 남송 초 재상으로 금나라와의 화의를 주도했다. 명장 악비를 죽이고 금나라에 사대한 간신으로 평가된다. 북송 휘종 정화 5년(1115) 진사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나섰다. 흥종 때 좌사간과 어사중승을 역임했다. 금나라가 남침한 정강지변(1127)으로 북송이 멸망했다. 진희는 휘종, 흥종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금나라가 장방창을 황제로 하는 괴뢰 정권을 개봉에 수락하려는 계획에 반대 상소를 올려 끌려가게 된 것이다. 1130년 진희가 갑자기 남송 조정에 나타났다. 금의 실력자 달라를 수행하던 중 도망쳤다고 주장하지만 양국의 화의를 목적으로 풀어

을 바랄하지 않으면 금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군들에게 추밀원 관직을 주는 대신 병권을 회수했다. 한세충과 장준을 추밀사에 악비를 추밀부사에 임명했다. 장준은 가까이 진회와 뜻을 같이 했다. 대금 강경론을 주장하는 악비가 골치덩어리였다. 결국 악비의 부장인 왕귀와 왕준을 교사해 역모를 조장했다.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악비와 그의 아들 악운, 부장 장현을 주살이 명했다. 진희는 휘종, 흥종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금나라가 장방창을 황제로 하는 괴뢰 정권을 개봉에 수락하려는 계획에 반대 상소를 올려 끌려가게 된 것이다. 1130년 진희가 갑자기 남송 조정에 나타났다. 금의 실력자 달라를 수행하던 중 도망쳤다고 주장하지만 양국의 화의를 목적으로 풀어

### 남송 초 재상...금나라와 화의 주도

준 것이다. 그는 포로 생활 중 화의파로 표현했다. 남송의 군사력으로는 신 흥 강국 금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소흥 원년(1131) 범중운을 대신해 남송의 재상이 되었다. 남송의 고종은 부친과 형이 북에 억류되어 있어 정통성에 적지 않은 도전이 있었다.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금과의 화평은 불가피했고 진희는 이를 실현할 최적인 인물이었다. 다음해 탄핵을 받아 물러났지만 1138년 재상에 복직 후 1155년 죽을 때까지 18년간 재상 직위에 있었다. 1134년 금이 재차 남침하자 남송은 장준, 한세충, 유광세, 악비의 분투에 힘입어 금군을 막아냈다. 군부의 득세로 군의 통제가 금과 화해를 추구하는 고종과 진희에게는 뜨거운 감자였다. 금으로 부터 부친 휘종이 죽고 모친 위씨는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은 화평 교섭에 박차를 가했다. 1139년 금과의 강화에 성공했다. 금이 하남과 섬서를 반환하는 대신 남송은 금의 신하로 예를 다하고 매년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세공으로 보내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금 내부의 정쟁으로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협상을 주도한 달라 일파가 처형되고 종간, 종필 세력이 집권했다. 1140년 재차 금군이 남침했으나 네 명의 활약으로 진격을 저지했다. 진희는 이들의 병권

세공으로 보낸다는 강화조건이었다. 회수를 국경으로 삼는 바람에 남송이 화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1차 조약보다 훨씬 불리했지만 남송 정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강화의 결과로 금은 휘종의 유해와 위씨를 돌려보냈다. 이로써 몽골족이 남하할 때까지 약 100년간 화평이 이루어졌다. 남송의 수도 임안은 번성했고 경제,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다. 진희의 화평주의는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군사적으로 월등한 금과의 싸움은 남송 왕조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었다. 진희의 계획이 남송 정권의 안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러나 충신 악비를 죽이고 오랑캐와 타협한 진희의 처신은 후대의 비판으로부터 부친 휘종이 죽고 모친 위씨는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은 화평 교섭에 박차를 가했다. 1139년 금과의 강화에 성공했다. 금이 하남과 섬서를 반환하는 대신 남송은 금의 신하로 예를 다하고 매년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세공으로 보내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금 내부의 정쟁으로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협상을 주도한 달라 일파가 처형되고 종간, 종필 세력이 집권했다. 1140년 재차 금군이 남침했으나 네 명의 활약으로 진격을 저지했다. 진희는 이들의 병권



미국 미시시피 주 깃발이 28일(현지시간) 주도 잭슨의 주 의사당 앞에서 나부끼고 있다. 미시시피 주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기(旗) 문양을 제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노예제 잔재’ 남부기 문양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미시시피 주 깃발서 없애기로

미국 미시시피주의 주 깃발에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자 노예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남부연합기(旗) 문양이 사라진다. 주 깃발에 남부연합기 문양이 남아 있는 곳은 미시시피가 유일해 이어서 미국 전역의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기 문양을 사라지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 하원은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기(旗) 문양을 제거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1표,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주 상원도 찬성 37표, 반대 13표로 남부연합기 문양을 제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과 함께 발효한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입장을 전달 밝혔다. 이번 입법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미 전역의 시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연합기 문양을 주 깃발에 사용하곤 미시시피도 이 흐름에 호응한 것이다. 사태 이후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재계, 대학, 체육단체 등에서도 남부연합기를 차별의 상징물로 보고 퇴출하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이번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 3일 새로운 깃발을 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함께 시행한다. 남부연합기란 1861년 노예제를 고수하며 합중국을 탈퇴한 미국 남부지역 11개주가 국기를 결성한 뒤 사용한 깃발을 말한다. 미국은 이후 남북전쟁(1861~1865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고 북군의 승리로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남부군이 사용했던 남부연합기 문양을 일부 사용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연합뉴스

### 제2 러시아 스캔들? ... '미군살해 사주' 두고 트럼프 진실게임

트럼프 "가짜뉴스... 보고 못받아"  
야당 맹공속 공화원 해명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무장정파인 탈레반에 미군 살해를 사주한 것을 알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이 같은 위협을 자신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기사 출처가 정부 당국자들인 만큼 보도가 옳다고 재차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NYT 보도를 거론하면서 "아무도 나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에게 얘기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두가 부인하고 있고 우리(미군)에 대한 공격이 많지 않았다.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보다 러시아에 강경하지 않았다"며 대선 맞수가 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가까웠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NYT는 러시아가 탈레반 측에 아프간 주둔 미군의 살해를 사주하고 포상금을 지급

했다는 점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3월 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이를 논의했으나 대 러시아 제재 등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26일 보도했다. NYT의 보도에 이어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CNN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이 보도를 확인해 뒤따라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사주로 미군이 위협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를 편드는 듯한 태도로 비판받아왔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